

의사 5명의 히로애락... 보고 감동하고 웃어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늘 첫 방송

조정석 "다섯 앙상블 기대해주세요"
유연석 "기존의 드라마와 결이 달라"
정경호 "시청자들에 위로 되었으면"
'응답하라' 시리즈 신원호 PD 신작



"메디컬드라마라고 하기에 거창하고, 메디컬드라마가 아니라 하기에 병원 이야기밖에 없고. 그냥 배경만 바뀌고 사람 사는 이야기는 똑같은, 한마디로 병원 사는 다섯 의사 친구들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신원호 PD)
아날로그 감성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은 '응답하라' 시리즈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돌아온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슬기로운 감빵생활'(2017)의 두 번째 시리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들 이야기를 담는다.

배우 조정석(40)은 10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안 할 이유가 없었다"며 "감독님과 작가님의 전작들을 좋아했던 터라 대본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정석은 낙관적이고 사교적인 간담체 외과 의사 역을 맡았다. 조정석은 "연기하고 있는 저도 익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매회차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하다"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인물"이라 소개했다.

이어 "다섯 명의 케미스트리와 앙상블을 기대해주시면 좋겠다. 의학 드라마와는 조금 다르게 숨겨져 있는 자신들의 재능이 있는데 그 점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예고했다.
소아외과 교수 정원을 연기한 유연석(36)은 "환자들과 있을 때와 친구들과 있을 때 차이가 가장 큰 인물"이라며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정다감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 있을 땐 까칠하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응답하라 1994'(2013)의 질봉이도 나와 많이

답아 제작진이 나라는 사람을 어찌 이렇게 잘 이해했을까 생각했는데 정원도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래서 더 재밌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낭만닥터 김사부'(2016)에서 외과 전문의를 연기했던 그는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는 다른 결의 드라마라 생각하고 촬영하고 있다. 병원 사는 다섯 친구의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부외과 의사 준하 역을 맡은 정경호(37)는 "감독님에게 하고 싶다고 계속 졸랐다"며 "예민하고 까칠한 준하가 제 실제 성격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본만 봐도 위로가 된다.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시즌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며 주1회 방송된다. 신 PD는 "이우정 작가와 15년간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메인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이 똑같다. 주어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드라마 자체 포맷을 바꿔보면 어떨까. 시즌제를 애초에 염두에 두고 드라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드라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됐다. 길을 열어놓고 회의하다 보니,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구성방식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제작환경을 고려해봤을 때 주 2회 드라마가 계속해서 제작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반드시 드라마가 잘 돼 새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제작환경과 시청자들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획했다. 이번에는 망하면 안 된다. 시즌 2도 해야 하고 3도 해야 한다. 도와주시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신 PD는 "드라마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욕심은 버리려고 한다"면서도 "많은 분이 보고 감동하고 웃으시면 좋겠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공감되고 보고 나서 이야기가 남고 생각이 남고 고민이 남는 이야기를 만들려 노력했다. 위로라는 건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을 때 이뤄지는 것 같고 그건 공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날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BTS소속사, 미국잡지 선정 '세계 50대 혁신기업' 4위

그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비즈니스 잡지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 컴퍼니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0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The World's 50 Most Innovative Companies 2020)' 명단을 발표했다.

매체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4위로 선정하며 빅히트가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위버스'와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에 주목했다.

위버스는 팬과 스타가 소통하는 커뮤니티로 하루 140만명이 방문한다. 위버스샵은 팬 커머스 플랫폼으로 200개국에서 180만명이 사용하며, 최근 위플리에 이름을 바꿨다.

빅히트는 지난해 6월 자회사 비엔엑스(beNX)를 통해 이들 플랫폼을 선보였다.

패스트 컴퍼니는 "이들 서비스는 테크 전문 스타트업이 아닌 빅히트 자회사 비



엔엑스가 직접 제작했다"고 언급했다. '음악 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의 하나라는 윤석준 빅히트 공동대표 말도 인용했다. 이 매체는 빅히트를 '2020년 가장 혁신적인 10대 음악 기업' 1위에도 선정했다.

패스트 컴퍼니는 매년 전 세계 기업에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경영 능력을 평가해 5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기업 스냅이 1위를 차지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2, 3위로 각각 선정됐다. /연합뉴스

이정재·박해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 이정재와 박해수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다.

11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456여명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목은 오징어 모양을 이루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도형 그림 위에서 공격자와 수비자가 대치하며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골목 게임에서 가져왔다.

이정재는 회사에서 구조 조정된 후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승 상금이 걸려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기운을 연기한다. 이정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해수는 어린 시절을 기운과 함께 보냈던 동네 동생 상우를 맡는다. 상우는



이정재 박해수

가난한 환경에서 노력해 서울대를 졸업하지만, 회사 자금을 유용하다 위기에 처하자 게임 참여를 결심한다.

연출은 '남한산성'(2017), '수상한 그녀'(2014), '도가니'(2011) 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맡았다. 황 감독은 연출뿐 아니라 각본까지 담당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뉴스특보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포레스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식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뉴스브리핑
3	00 공사창립특집 다큐 인사이트 55 UHD 스테라(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킴지 아해 동물탐대 3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시노스톤 프라이م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콘텐트 박물관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공사창립특집 다큐 인사이트 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포레스트	05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향정 세 어머니 이야기	00 맛남의 광장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00 다크세상(재)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0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왕스	12:10 팻하트	17:45 올리 앤 문(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다크 시선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30 보로로와 노래해 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다크동화 달팽이(재)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0 출동! 슈퍼왕스(재)	20:30 자이언트 팽TV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크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푸드 트립 스페인-어울려야 제 맛>
09:40 야옹야옹 귀여워2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페퍼 피그(재)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4부 너른이물jenja>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다크 시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2일(음 2월 18일 甲寅)

<p>子</p> <p>36년생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보라. 48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60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72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느니라. 84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96년생 객관적이지 않다면 실용성이 없다. 행운의 숫자 : 37, 90</p>	<p>午</p> <p>42년생 다름이라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54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66년생 다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78년생 단단해 보였던 것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90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02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43, 86</p>
<p>丑</p> <p>37년생 겁 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 49년생 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겁이 희다고 속까지 같으리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73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85년생 결과를 보는 날이다. 97년생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98</p>	<p>未</p> <p>31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도다. 43년생 대체로 길조이다. 55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결림들도 보인다. 67년생 꼼꼼히 살펴보고 완성성을 도모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79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91년생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9, 67</p>
<p>寅</p> <p>38년생 경제성부터 헤아리자. 50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함이 옳다. 62년생 예리한 안목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보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74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다. 86년생 고경관람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움을 볼 수 있다. 98년생 고진감래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23, 99</p>	<p>申</p> <p>32년생 막연한 희망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44년생 운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56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68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80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92년생 남에게 말기말고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3, 72</p>
<p>卯</p> <p>39년생 과도하다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51년생 관계가 매끄러워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느니라. 63년생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목격하는바와 거리가 생길 수 있느니라. 75년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87년생 관망은 운세이니 강구해도 될 것이니라. 99년생 구체적이었음도 평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14, 60</p>	<p>酉</p> <p>33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45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57년생 탄력 이 불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69년생 화셋거리의 주인 공이 될 수도 있다. 81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93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6, 91</p>
<p>辰</p> <p>40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질하라. 52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4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76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88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 될 수 있는 일이 생길리라. 00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29, 92</p>	<p>戌</p> <p>34년생 절차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46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안이 필요하다. 58년생 대의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하다고 볼 수 있다. 70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82년생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94년생 폭 넓은 안목이 감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93</p>
<p>巳</p> <p>41년생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3년생 낙관적인 미래이다. 65년생 내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77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89년생 자신이 쏟아 부은 노력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01년생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일제히 나서 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45, 85</p>	<p>亥</p> <p>35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47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59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71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 83년생 의외의 대처하자. 95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66</p>